

## 하중도(河中島)

홍성준

영산강 하구에는  
강물이 흘러고 간 모래가 섬처럼 남아  
이내 남겨진 것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.  
몇 개의 억새풀 씨앗이 검게 떠밀려와  
서로 몸을 비비며 균락을 이루고  
검은 비닐 따위가 수초마냥 휘청대고 있다.  
아차, 하는 순간 모두 떠내려갈 것 같은 적막.  
하지만, 하중도는 적막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.  
차박차박 물장구치는 소리와 함께  
무리를 놓친 빨논병아리가 머리를 내밀고  
깃털을 털며 가늘게 훑쩍이는 소리가  
간간히 물결치듯 적막을 밀어냈다.  
시베리아 강가에 알을 품은 다른 등지마냥  
빈 모래 무덤에 슬픈 부리를 비비며  
그는 오후의 여름을 힘겹게 넘고 있다.  
비밀 언덕이 필요한건 모두 마찬가지로.  
누군가 크게 한숨이라도 쉬면 날아갈 듯한,  
하중도가 떠내려가지 않는 건  
그가 부리로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.  
상류에서 떠내려 온 비닐봉지만 칭얼댈 때에도  
텅 빈 모래 등지가 황폐한 바람에 나동그라질 때에도  
강가와 맞닿은 곳에 하늘로 물관을 내린  
나무뿌리 사이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며  
지치지 않은 새로운 등지를 쌓아올린다.  
늦은 가을의 꺾바퀴, 빨논병아리의 물장구소리에  
도시에서 떠내려 온 이들이 어딘가 자신을 단단히 묶어둘 곳을 찾고 있다.